

통계로 보는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교회가 속한 세상은 지역 사회, 즉 '마을'이다. 교회가 국가,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마을이라는 단위를 무시하고는 교회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을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 밖을 넘어서 마을로 확대되고 있다. 교회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을을 도울 때 교회는 세상과 접촉점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나타난 활동이 '마을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단순히 전도의 방법을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교회에 우호적 감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생존 방식을 바꾸며, 교회의 사명 실현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마을목회이다. 모든 목회자, 심지어 현재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도 99%가 마을목회 필요성에 동의한다.

<넘버즈 153호>에서는 마을목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목회는 어떤 것인지, 마을목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넘버즈 153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마을목회 인식 조사

마을목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할 수 있고, 교인들의 돌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전인적 삶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소장 정재영 교수)는 새로운 선교적 흐름으로 마을목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여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의 체계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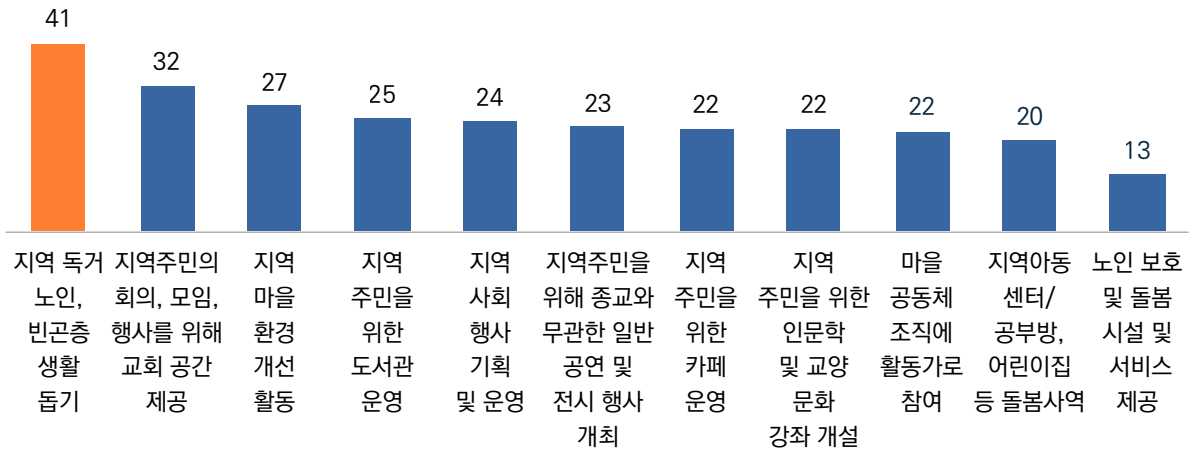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목회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휴대전화를 통해 URL 발송) - 목회데이터연구소 구독 목회자, 마을목회 참여 목회자, 페이스북 활용
• 표본 규모	총 507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3월 24일 ~ 30일 (7일간)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대표적인 마을목회, '지역 빈곤층 돕기 활동'!

- ▶ 마을목회 활동으로는 지역 빈곤층 돕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활동들은 시설, 전문성 등이 요구 되는데 비해 빈곤층 돕기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그 외 마을목회 활동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의 특성 및 목회자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마을의 특성을 잘 분석하는 것이 마을목회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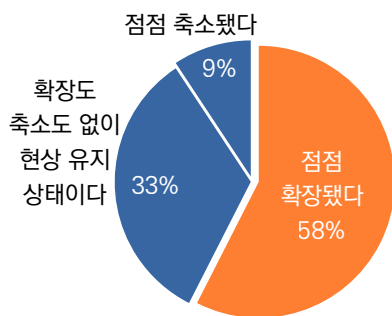
[그림] 실시하고 있는 마을목회 활동 (마을목회 하는 목회자, 중복응답, 상위 1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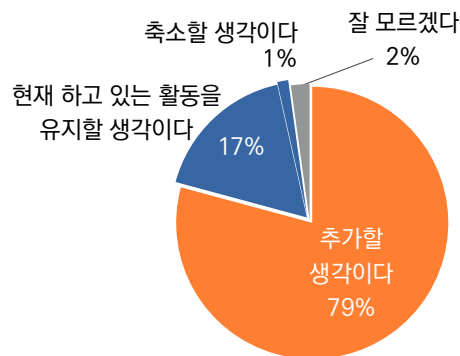
◎ 한국교회에서 마을목회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 ▶ 마을목회자들은 마을목회를 시작할 때 보다 현재 확대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목회를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 ▶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초기대비 마을목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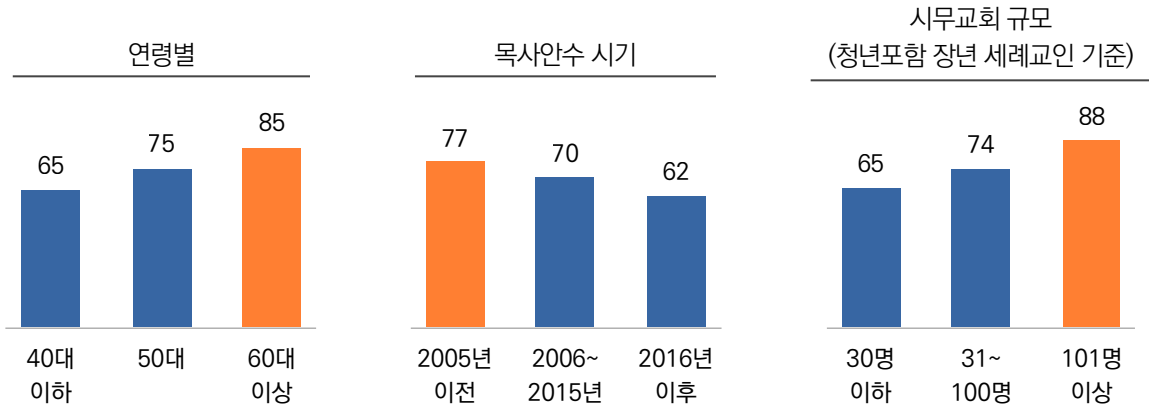
[그림] 향후 마을목회 확대 의향



◎ 마을목회하는 목회자 특성 → 연령이 높고 교회 규모 클수록 많아!

- ▶ 마을목회하는 목회자(담임목사)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대체로 목회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마을목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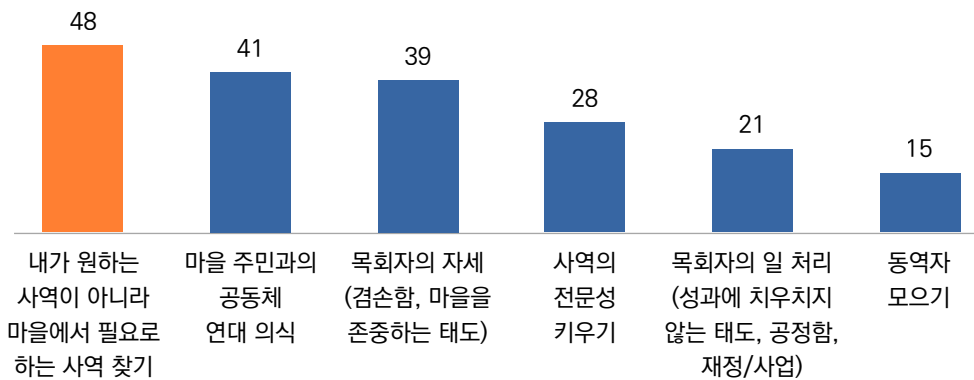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하는 목회자 특성 (담임목사 기준, %)



02 마을목회는 ‘마을 중심’으로!

- ▶ 마을목회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 찾기’(48%)이다. 마을목회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마을의 수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연대 의식’(41%)과 ‘목회자의 자세’(39%) 등 마을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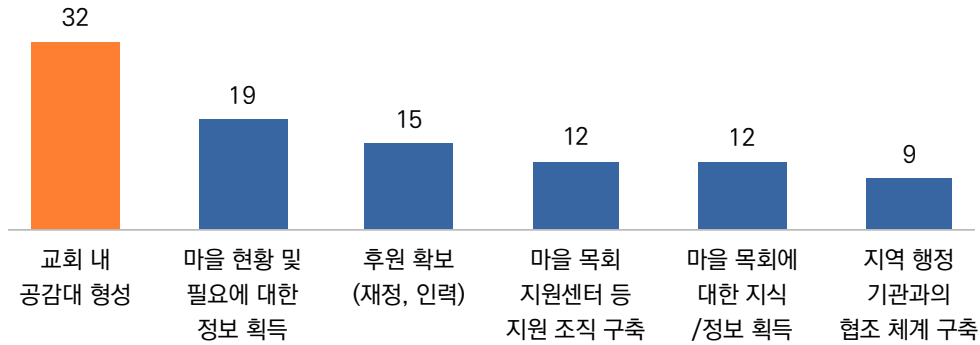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할 때 고려 사항 (1+2순위, 상위 6개, %)



◎ 마을목회는 교인들과 함께!

- ▶ 마을목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응답(32%)이 가장 많아서, 마을목회를 목회자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
- ▶ 그 다음으로 마을에 대한 정보 획득, 즉 마을에 대한 이해(19%)와, 후원 확보(15%)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을목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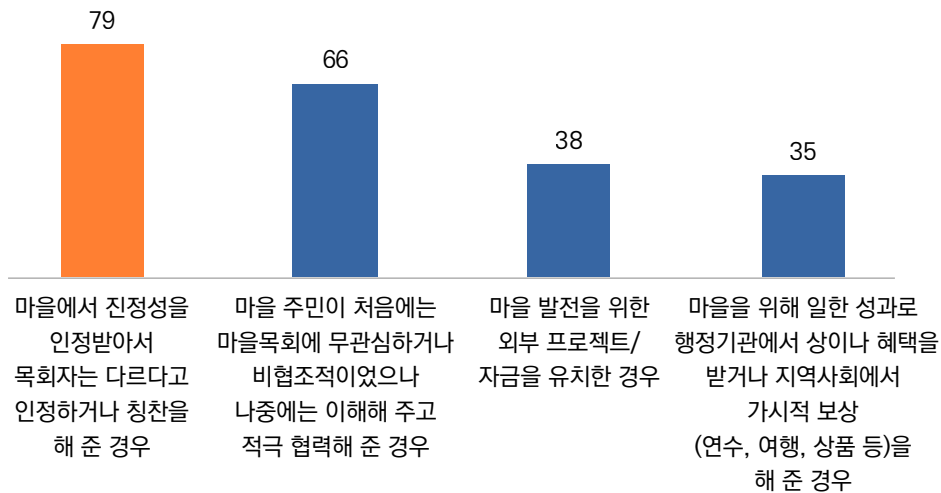


03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 ▶ 마을목회 하는 교회(목회자)를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이해해주고 적극 협력해 주었으며(66%), 지역사회로부터 교회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긍정적인 칭찬(79%)을 받기도 한다. 그야말로 바닥수준인 한국교회 신뢰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역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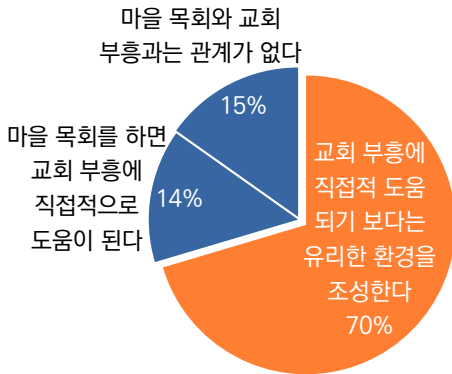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하면서 항목별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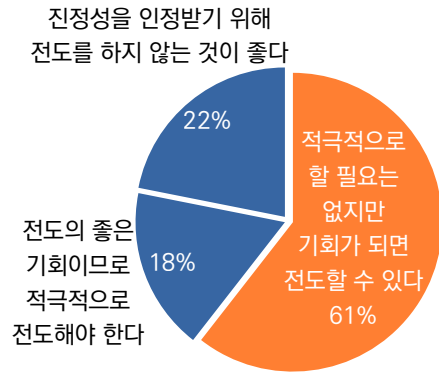
◎ 마을목회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교회 부흥에 기여한다!

- ▶ 마을목회 목회자들은 마을목회에 대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구현, 이웃 사랑이 목적이므로 마을목회가 직접적인 교회 부흥 혹은 전도의 수단은 아니지만, 전도와 교회 부흥에 유리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마을목회와 교회 부흥의 관계



[그림] 마을목회와 전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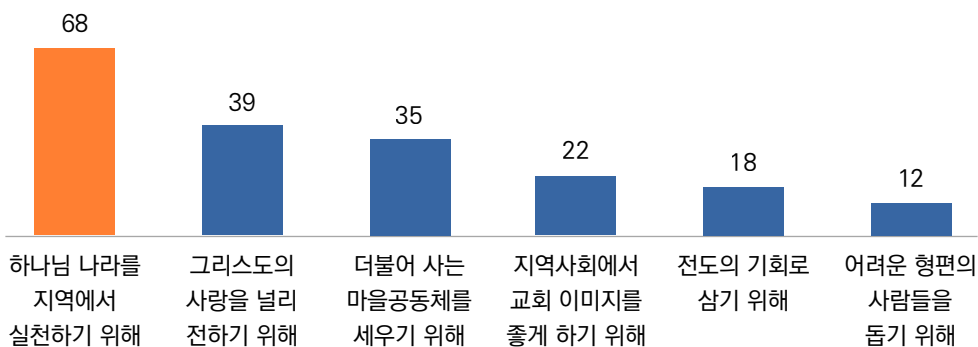


04

마을목회 목적은 '하나님 나라 실현'이다!

- ▶ 마을목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68%)
- ▶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39%)와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서(35%) 마을목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즉, '이웃 사랑'의 목적도 마을목회의 주요 목적이다.
- ▶ 한편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는 18%로 높지 않았는데, 마을목회자는 마을목회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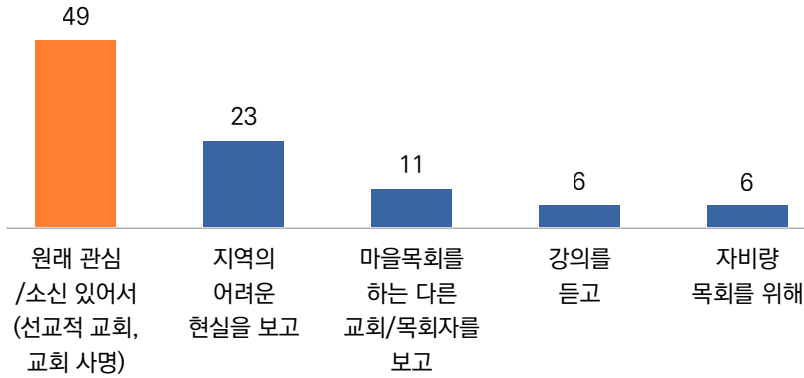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하는 목적 (1+2순위, 상위 6개, %)



◎ 마을목회는 목회적 소신 때문에 한다!

- ▶ 마을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소의 목회적 소신' 때문에 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었다.(49%) 이때 목회적 소신은 '선교적 교회', '이웃 사랑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 ▶ 원래 소신은 아니지만 '지역 현실을 보고'(23%), '마을목회 교회/목회자를 보고'(11%) 등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마을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마을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그림] 마을목회 하게 된 계기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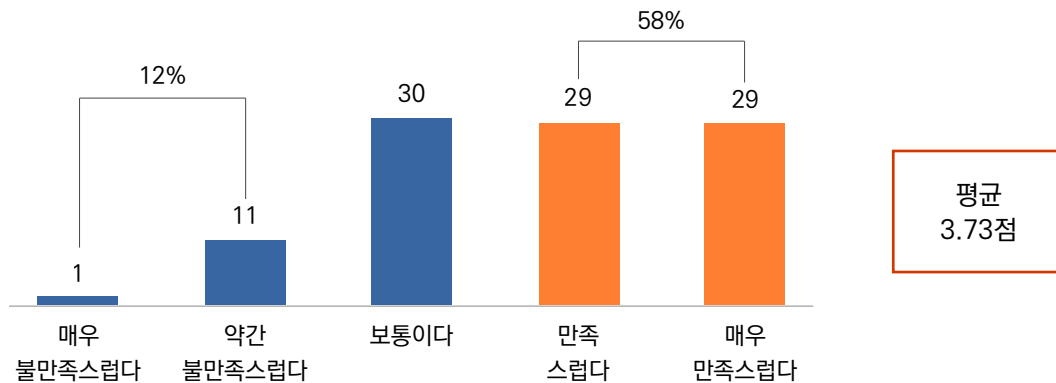


05

마을목회를 하는 목회자, 스스로 만족도 높다!

- ▶ 마을목회자들은 마을목회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5점 척도)이 58%, 보통 30%, 불만족 12%로 만족 비율이 불만족 보다 매우 높았다. 평균점수 또한 3.73점으로 높았다.
- ▶ 만족 비율 가운데 '매우 만족'이 29%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마을목회가 목회자로서의 사명감 충족에 효과적인 목회 방식임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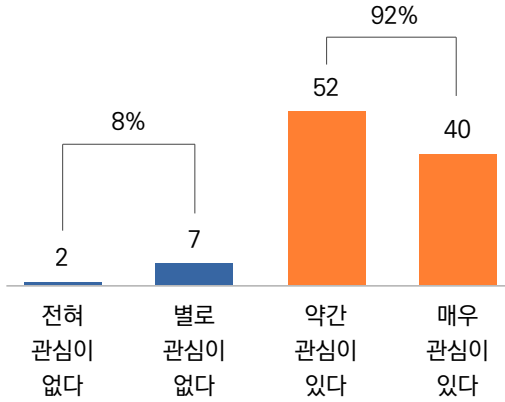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만족도 (5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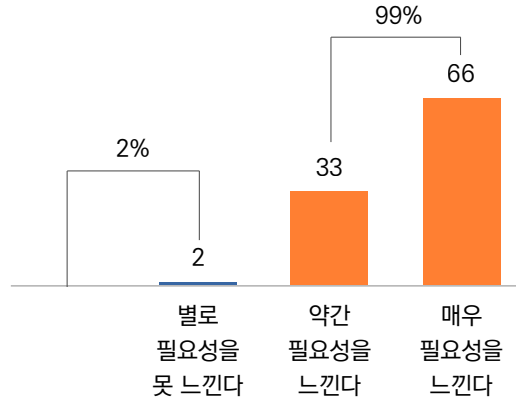
◎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절대다수, ‘마을목회 필요성’ 공감

- ▶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마을목회를 설명했을 때, 거의 모두가 ‘관심있다’(92%)고 했고, ‘필요하다’(99%)고 응답했다.
- ▶ 개인적 관심도가 높으며, 개인적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마을목회 관심도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



[그림] 마을목회 필요성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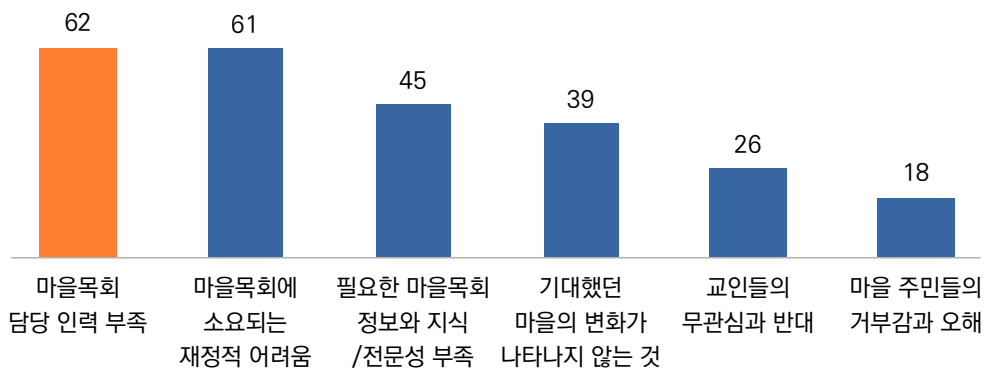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6

마을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과 ‘재정’이다!

- ▶ 마을목회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62%)과 ‘재정적 어려움’(61%)이었다.
- ▶ 그 외에 ‘마을목회 정보와 지식/전문성 부족’(45%),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39%), ‘교인들의 무관심과 반대’(26%)도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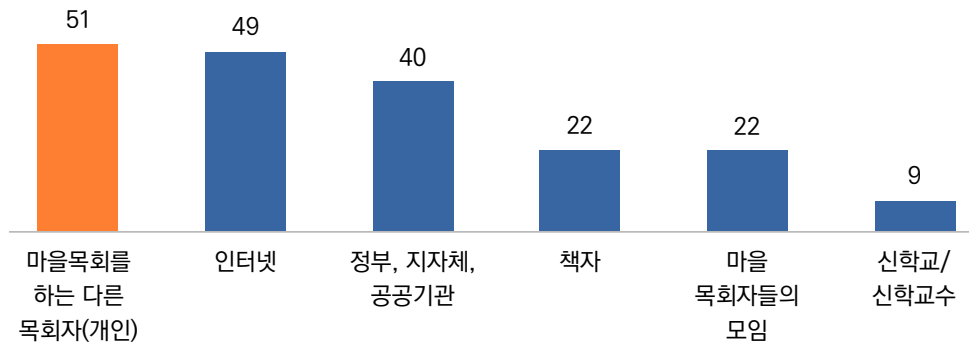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어려움 (1+2+3순위, 상위 6개, %)



◎ 그러나 아직까지 마을목회는 비체계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마을목회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로는 ‘마을목회를 하는 다른 목회자’였다. 그것도 ‘마을목회자 모임’(22%)이 아니라 ‘마을목회자 개인’(51%)이었다.
- ▶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49%이었는데, ‘마을목회자 개인’이나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는 체계적 정보가 아니라 단편적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 ▶ 단편적 정보는 마을목회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접근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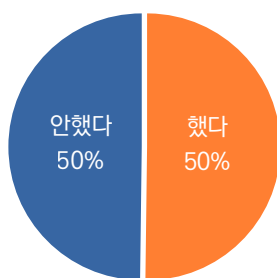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정보 획득 경로 (1+2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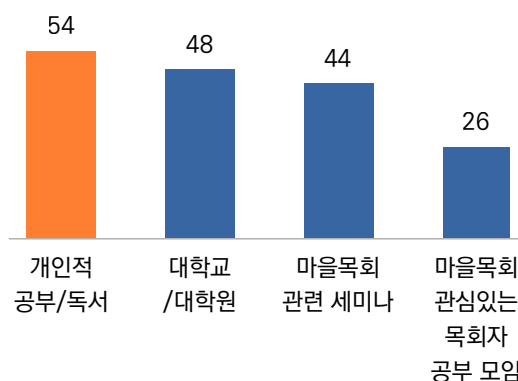
◎ 마을목회,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시스템 필요!

- ▶ 마을목회자들의 마을목회 관련 정보가 단편적 정보인 것은 왜 그럴까? 마을목회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가 부족해서이다. (‘마을목회를 공부했다’ 50%)
- ▶ 공부도 개인적으로 공부한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 ▶ 체계적이고 현실 적합성이 높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대학교, 세미나 등을 통한 공부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마을목회 관련 공부 여부



[그림] 마을목회 관련 공부 방법 (중복응답, %)



시사점

산업발전기, 민주화 시기에는 산업발전과 민주화가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 목표가 국가를 단위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짜서 정책을 실행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포항, 울산, 구미 등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민주화는 국가의 권력 구조를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된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사고가 국가 단위에 맞춰져 있었다.

산업발전기를 지나서 삶의 질이 중요해진 시기로 들어오면 '지역'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터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가 지역이므로 지역의 발전이 없으면 생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정책을 실행하므로 지역 단위의 발전과 개선은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래서 지역의 주체적, 자발적 자치 운동을 풀뿌리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을운동은 하향식 운동이 아니라 상향식, 즉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을목회는 마을 운동을 교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활동이다. 목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즉 마을로까지 이어져 마을 공간, 사람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목회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 개념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시공간, 즉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이 마을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마을이 중심이 된 목회이다. 마을목회가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는 모두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농촌과 도시, 구도시와 신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단독주택과 아파트,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 등등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마을마다 다른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교회의 의지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한 것처럼 마을

목회는 마을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마을의 일원이 되는 목회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펼쳐 온 사회봉사는 구제 중심이었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가 대상화되고 교회는 베푸는 자, 시혜자가 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들 속으로 들어 가신 것처럼 마을목회는 교회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의 일원이 되어 마을과 함께 하는 실천 운동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낮은 자세로 마을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마을목회가 성공한다.

마을목회는 직접적으로 전도의 수단이 아니다. 마을목회는 그 자체로 이웃 사랑의 행위이다. 국민일보가 코디연구소와 함께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봉사를 진정성있게 하는 종교로 가톨릭이 2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개신교는 14%로 가톨릭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개신교 사회 봉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개신교의 사회봉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75%)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보면 마을에서 교회가 전도를 위해 마을 활동을 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교회는 마을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마을목회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마을목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단순 구제 활동에서부터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운영, 지역사회 경제 운동, 환경 운동, 청소년 활동 등등 여러 분야가 있고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마을목회자들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유리될 수 없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추락한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 마을목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